

화해의 사람들

김동수 반희영 윤선 수현 선교사 87번째 아프리카 이야기

기도제목

1. 아프리카 10개국 21유닛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모든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과 사역에 귀한 열매들을 위해서..)
2. 8월 한국 방문을 위해 기도 요청합니다. 3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데 이번 한국 방문은 여러 부분에서 저희들에게 큰 의미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 특별히 비자 문제로 인한 사역지 이동에 관한 부분을 결정 짓고
 - 파송 교회를 찾아야 하는 부분
 - 예비하신 만남들이 이루어지길
 - 그 외 여러 필요들이 채워지길
3. 한국 방문중 사역지를 위해.. 위임자들이 책임감있게 사역을 감당하고 어린이교회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예배시간을 지키도록...
4. 저의 이른 한국 방문으로 인해 이곳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위해... 아내와 아이들은 학교 방학에 맞춰 12월 초에 입국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안전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5. 11학년(고2)인 윤성이가 기도함으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도록... 하나님을 의뢰함을 배워가는 시기가 되도록...



지난 6월 17일 부터 20일 까지 이곳 케이프 타운에서 침례교단 아프리카 선교사 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유관재 목사님, 손석원 목사님, 백승기 목사님, 정승룡 목사님이 참석하셔서 대회를 위한 모든 재정을 후원해 주셨고 대회기간 중 매일 말씀으로 저희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도전을 주셨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단은 아프리카에 총 10개국에 21 유닛 (17가정, 4 독신)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크다 보니 사역도 다양하고 거리도 너무 멀어서 서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번 전략회의에는 15개 유닛, 20명의 선교사님들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일 저녁 집회 시간과 낮에는 각자가 생각하는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전략과 이슈 등에 대해 논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회기간중 아내는 점심, 저녁을 한식식사로 섬겼고 저 역시 대회의 모든 전반을 섬길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폐회 예배를 마치고 모두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가면서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2021년 세네갈 에서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각자 사역하는 나라에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것을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땅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늘 기도하고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가는 걸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